

각종 특강 핑계... 강의 횟수 늘려...

여름방학 학원비 '슬쩍 인상'

광주교육청 특별 단속...초과 징수 11곳 적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A(45·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자갑이 더 가벼워졌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방학 특강 등을 핑계로 수강료를 기습 인상한 탓이다.

자물이 조사결과 대입 학원 수강료가 지난해 대비 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월7일부터 8월1일까지 벌인 '하절기 학원 특별 단속'에서도 전체 점검대상 51곳 중 21.6%인 11곳이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됐으며, 이는 적발된 학원 25곳의 44%에 이른다.

학원 밀집지역인 광주시 동구 장동

이내 분선동 일대의 학원들은 방학이 아닌 기간에도 한 과목당 수강료가 20만~25만원을 호가한다. 방학이어서 한 과목만 선택하지 않고 3~4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원 수강료만 월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교육청은 조례로 적정 학원 수강료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조례에 따르면 외국어학원의 경우 수강료 기준이 5만8천600원

(월 20시간·내국인 강사), 보습학원 5만1천400원, 입시학원 5만1천700원이다. 이는 타 시·도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난 2년간 동결됐다.

단속 인원이 턱없이 모자란 것도 학원 수강료 편법 인상을 부추긴다. 동·서부 지역교육청 담당 공무원 6명이 광주 시내 학원 4천866곳을 맡고 있다. 1명 당 811곳에 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게 정 조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폐막된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 국제로봇 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관람객들이 로봇들이 펼치는 '휴머노이드 축구경기'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부하 장교 상습 폭행

상관 구속영장 신청

부하 장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상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육군본부는 6일 "장성 상무대 헌병대가 직속 부하를 상습 폭행해 고발된 육군공병학교 신모 소령에 대해 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소령은 지난달 24일 밤 함께 근무하는 A대위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공병학교는 검찰의 신병처리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 소령에 대해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서 열린 '대한민국 과학축전'

20만여명 관람 성황리에 막내려

국내 최대의 종합과학축제인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이 20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전은 처음에 6만여명 관람객을 유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전은 처음에 6만여명 관람객을 유치했다. 광주지하철 60주년을 맞아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주제로 여섯동안 진행됐다.

광주시는 이번 축전을 통해 5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 '2009 광주세계엑스포' 등을 전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기간이 여름휴가철과 겹치면서 수도권·충청권·영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5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광주·전남 방문의 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광주 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터역을 이용한 승객 수도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배출도시인 광주의 상징성을 부각시킨 '항공우주 연구관'과 UN이 정한 '지구' 기념 특관, 에너지관, 목도의 생애 등 다양한 전시와 과학실험 체험프로그램 등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내외 유명 과학서적을 판매하는 '사이언스 북페어' 코너에서는 하루 500여권이 판매돼 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과학축전에는 미국·이스라엘 등 6개국, 7개팀을 비롯 국내 32개 출국 각지에서 5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광주·전남 방문의 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광주 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터역을 이용한 승객 수도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베란다서 버린 '물양심 담배꽂초'

잇단 화재...아파트마다 향의 소동

고층에서 담배꽂초를 버리는 일부 불지각한 흡연자들이 인해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흡연 공간이 좁아든 흡연자들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화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광주 관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50분께 관산구 일곡동 김모(40)씨의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분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의해 5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조사팀은 옥상에 담배꽂초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인근의 고층건물에서 던진 담배꽂초를 확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오후 1시50분께는 관산구 신창동 S빌라 3층 계단 창문 옆에 널려있던 이불에 담배꽂초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중순에도 북구 문흥동 K 아파트 김모(38)씨의 집 베란다 커튼에 담배꽂초가 떨어져 불이나 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고층에서 버린 담배꽂초 때문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남구 분선동 A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층에서 버린 담배꽂초나 담배꽂이가 차양에 떨어져 이를 혐의하는 민원이 한 달 평균 10~2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북구 용봉동 B 아파트도 같은 민원이 매달 10여건 접수되고 있다.

광주시소방본부 조성수 화재조사담당은 "고층에서 버린 담배꽂초는 아파트 현관 지붕이나 화단 또는 도로에 쌓여 주변을 더럽게 만들고 때로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현주기자 ahj@

니원침 (7576) 김종두



전남교육과학연구원 탐구관 특혜

감사원, 2명 추가 징계 요구

전남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해 자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2명이 감사원의 추가 징계 요구를 받았다.

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전남교육과학연구원 K 부장과 도교육청 J사무관(당시 도교육과학연구원 과장) 등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K부장 등은 지난 2006년 탐구학습관 전시물 설치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에서 제외해야 할 공동수급업체 실적까지 합산하는 방식으로 특혜업체를 밀어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 3개 업체 가운데 1순위인 S사 대신 2순위인 P사가 최종 선정됐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업체 선정

과정의 잡음이 끊이지 않자 도교육위원회가 의뢰해 이뤄졌다. 지난해 7월 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는 이들 2명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9명이 견책·경고·주의를 각각 받았으며, 감사원은 K부장(경고)과 J사무관(주의)에 대한 처분이 약했다고 판단, 추가 징계 요구를 내린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들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탐구학습관 현대화 사업은 당초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41억여원을 들여 4개 전시관에 168종의 전시물을 설치하려던 것이었으나 진행 과정의 잡음으로 1차년도 사업만 2순위로 추진되고 중단된 상태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취업 사기 시정 공무원 영장

광주지방경찰청은 6일 공무원 취업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광주시청 8급 공무원 이모(5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4월 광주시 서구 매월동 농산불공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농산불공

개인 이모(58)씨에게 "아들을 시정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3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로챈 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자신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광산구 공무원 등 3명으로부터 7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늑대 돌변' 직장 동료가 상습 성폭행

○광주광산경찰은 6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A(3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B(여·46)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B씨와 함께 광주 모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B씨를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렸다고 으름장을 놔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온 것으로 확인.

○A씨는 최근 B씨가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찾아가 가스총과 흉기를 들이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폭행 장면을 보여주는 등 B씨를 협박. /강삼필기자 kp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해령법률경매' (Haeryeong Real Estate Auction)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auction, including address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무등산 문빈정사' (Mudeungsan Munbinjeongsa)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auction, including address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